

보이는 차이나

‘1일 1모델’ 발표, 뜨거워지는 중국 LLM 시장

- 글로벌 증시 변동성 속에서도 중국 AI 생태계 성장세 지속. 시장의 관심도 반도체, LLM, 에이전트, 휴머노이드 등 AI 생태계 내부에서 순환하는 모습
- 중국 LLM 기업들은 가격 대비 성능과 오픈소스 전략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확대 중. 경쟁의 중심도 모델 성능에서 코딩과 에이전트, 기업용 서비스로 이동하는 추세
- 중국 과창판과 홍콩거래소 중심으로 AI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 확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모델 개발, 토큰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
- 투자 관점에서는 LLM 개별 기업보다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접근이 중요.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보유한 중국 빅테크의 역할 강화 기대

최근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 특히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 확대는 중국 증시 기술주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여전히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책 지원과 기술 개발도 지속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AI 산업 밖으로 이동하기보다 AI 생태계 내부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CXMT 상장을 전후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됐던 관심은 최근 LLM과 에이전트 분야로 옮겨가고 있으며, 향후 유니트리 상장을 계기로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개별 분야별 부침과 속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반도체와 LLM,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으로 이어지는 AI 생태계 전반의 성장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Moonshot AI의 Kimi-K3 출시 이후 중국 LLM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알리바바의 Qwen과 DeepSeek 등 주요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으며, 경쟁의 중심도 모델 성능 향상에서 코딩과 에이전트, 기업용 서비스 등 실제 활용 영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의 시선 또한 Kimi나 DeepSeek 같은 개별 모델보다 중국 LLM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와 생태계 확장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LLM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략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격과 성능, 오픈소스 전략을 앞세운 중국 LLM 시장 확대

중국 LLM 기업들의 가장 큰 경쟁력은 가격 대비 성능이다. DeepSeek, 알리바바, 텐센트, Zhipu AI, MiniMax 등 주요 기업들은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고, 오픈소스와 용도별 특화 모델을 확대하며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범용 모델뿐 아니라 코딩, 추론, 멀티모달, 에이전트 등 작업별로 세분화된 모델이 꾸준히 등장하면서 기업과 개발자의 선택지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특히 DeepSeek의 등장은 중국 LLM 산업의 경쟁 구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여전히 미국 기업들이 최상위 모델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도 빠른 개발 속도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오픈소스 전략까지 결합되면서 개별 모델의 성능 경쟁을 넘어 개발자 생태계와 응용 서비스 영역까지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다.

중국 AI 기업들의 목표는 모델 판매 자체보다 더 많은 사용자와 토큰 사용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서비스 도입 장벽이 낮아지고,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데이터 축적과 모델 고도화, 수익화 기회도 함께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은 가격을 기반으로 사용자 기반을 먼저 넓힌 뒤 클라우드와 개발 플랫폼, 기업용 서비스까지 생태계를 확장하는 전략에 가깝다.

중국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모델을 빠르게 출시하고, 성능 개선과 가격 인하를 반복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딩과 추론, 멀티모달, 에이전트 등 분야별 전문 모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모델 개발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LLM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모델을 완전히 배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안과 데이터 관리 측면의 부담은 존재하지만, 높은 가격 대비 성능과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면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업무에서는 여전히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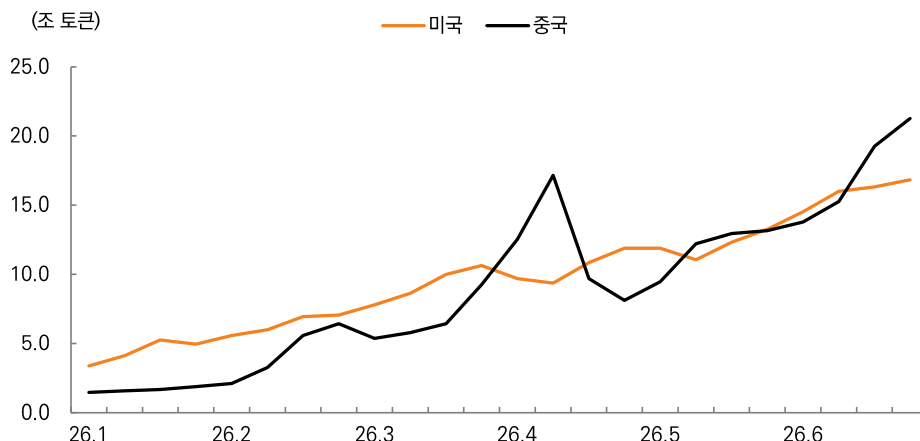
최근에는 하나의 모델만 사용하는 방식보다 업무 특성에 따라 여러 모델을 조합하는 멀티 모델 라우팅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서 작성과 번역, 반복적인 코딩처럼 비용 민감도가 높은 작업은 Qwen나 Qwen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이 처리하고, 복잡한 추론이나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업무는 클로드 등 고성능 모델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특정 모델이 시장을 독점하기보다 여러 모델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공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중국 기업들 역시 글로벌 AI 생태계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 1. 글로벌 주요 LLM 월간 토큰 사용량 순위 (월간) : 중국 LLM이 상위 10개 중 7개 차지

LLMLeaderboard				All models	This Month
Compare the most popular models on OpenRouter					
1.	 MiMo-V2.5 by xiaomi	33.8T tokens ↑98%	6.	 MiniMax M3 by minimax	12.6T tokens ↓25%
2.	 DeepSeek V4 Flash 0423 by deepseek	26.1T tokens ↑26%	7.	 Hy3 by tencent	10.7T tokens new
3.	 Hy3 (free) by tencent	19.4T tokens new	8.	 Nemotron 3 Ultra (free) by nvidia	10.6T tokens ↑219%
4.	 GLM 5.2 by z-ai	14T tokens ↑136%	9.	 Claude Opus 4.8 by anthropic	6.27T tokens ↓14%
5.	 DeepSeek V4 Pro by deepseek	12.8T tokens ↑36%	10.	 Step 3.7 Flash by stepfun	5.93T tokens ↑19%

자료: OpenRoute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국·중국 LLM 토큰 사용량 추이



자료: OpenRoute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1. 글로벌 주요 LLM API 호출 가격 비교 (단위: USD/백만토큰)

기업	모델	입력 가격	출력 가격	포지셔닝
Anthropic	Claude Fable 5	10	50	폐쇄형
OpenAI	GPT-5.6 Sol	5	30	폐쇄형
Anthropic	Claude Opus 5	5	25	폐쇄형
Moonshot AI	Kimi K3	3	15	오픈웨이트
OpenAI	GPT-5.6 Terra	2	12	폐쇄형
Google	Gemini 3.1 Pro	2	12	폐쇄형
Alibaba	Qwen 3.7 Max	2.5	7.5	오픈웨이트
Zhipu AI	GLM-5.2	1.4	4.4	오픈웨이트
DeepSeek	K2.7 Code	0.9	4	오픈웨이트
MiniMax	MiniMax M3	0.6	2.4	오픈웨이트
OpenAI	GPT-5.6 Luna	0.2	1.2	폐쇄형
DeepSeek	DeepSeek V4 Flash	0.14	0.87	오픈웨이트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코딩·에이전트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 고객(B2B) 확대

지난해 중국 AI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영상 생성과 멀티모달이었다면, 올해는 코딩과 에이전트가 핵심 경쟁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GLM 5.2와 Kimi K3, Qwen 계열 모델들은 코딩과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초기 생성형 AI 시장이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형 챗봇 경쟁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용 서비스 개발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가 아니라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고, 필요한 도구와 데이터를 호출하며, 실제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다. 이러한 환경에서 코딩 능력이 외부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업무 절차를 자동화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 고객 확대라는 방향성은 미국과 중국이 유사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미국 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성능과 보안, 기업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을 앞세워 고부가가치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이를 구독 서비스와 API, 클라우드 매출 확대 전략으로 연결하고 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가격 대비 성능과 오픈소스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의 도입 장벽을 낮추고 사용자와 토큰 사용량을 빠르게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업 고객 확보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 고객은 일반 사용자보다 많은 토큰을 장기간 소비할 뿐 아니라 클라우드와 데이터 저장, 추론 서비스, 개발 도구, 보안 솔루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용 AI 수요 확대가 모델 사용량 증가를 넘어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AI 인프라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산업 현장에서 축적되는 고품질 데이터 역시 중요한 자산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산업 특화 모델 개발과 에이전트의 정확도 향상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간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데이터가 대규모 언어모델의 초기 성장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산업 데이터가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산업 특화 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산업 데이터 확보 능력이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표 2. 코딩 분야 주요 LLM 순위 및 중국 모델 현황

등급	미국 LLM	중국 LLM
S (최상위권, 실무 수준의 코딩·에이전트 수행 가능)	Claude Fable 5, GPT-5.6 Sol	Kimi K3
A (상용 서비스 수준, 복잡한 개발 작업 가능)	Claude Opus 4.8, GPT-5.5, GPT-5.6 Terra, Claude Sonnet 5, Gemini 3.1 Pro, GPT-5.6 Luna	DeepSeek-V4-Pro, Kimi K2.6, GLM-5.2, MiniMax M3, Hunyuan Hy3, Step-3.7-Flash
B (범용 모델 수준, 일반적인 코딩 작업 가능)	Gemini 3.5 Flash, Nemotron 3 Ultra, Nova 2 Pro	DeepSeek V3.2, DeepSeek R1, MiMo-V2-Flash, Qwen 3.5, Step-3.5-Flash
C (일부 영역에 강점 보유)	Grok 4.5, Nemotron Ultra 253B	Qwen3.7-Max, ERNIE 5.1, MiMo-V2.5-Pro

자료: Onyx,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PO 확대와 AI 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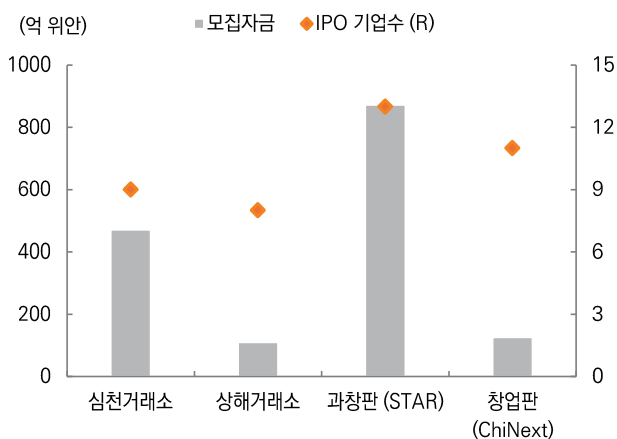
작년부터 중국 LLM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에는 연구 인력 확보뿐 아니라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센터 투자, 반도체 구매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아직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자체 현금흐름만으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홍콩 증시와 과창판을 중심으로 AI 기업의 상장과 추가 자금 조달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AI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6월 루자주이포럼에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우칭 주석은 우수한 LLM 기업의 과창판 상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상하이거래소는 범용 모델과 산업 특화 모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공개했으며,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 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상장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LLM 기업에 보다 명확한 자금 조달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Moonshot AI와 DeepSeek, Zhipu, MiniMax 등 주요 기업들은 홍콩 증시와 중국 본토 증시 상장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차세대 모델 개발과 데이터센터 구축, AI 칩 구매, 핵심 인재 확보에 다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용자 확대와 토큰 사용량 증가, 기업가치 상승, 추가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며 중국 AI 생태계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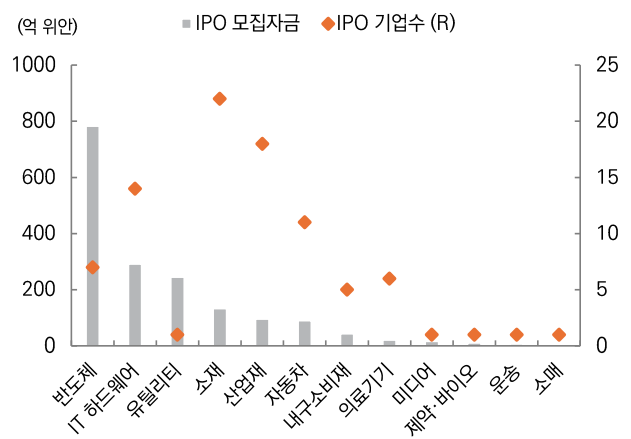
자본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AI 기업들이 잇달아 홍콩 증시와 과창판에 상장할 경우 중국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정부가 AI와 반도체, 휴머노이드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3. 중국 증시 보드별 IPO 현황 (Y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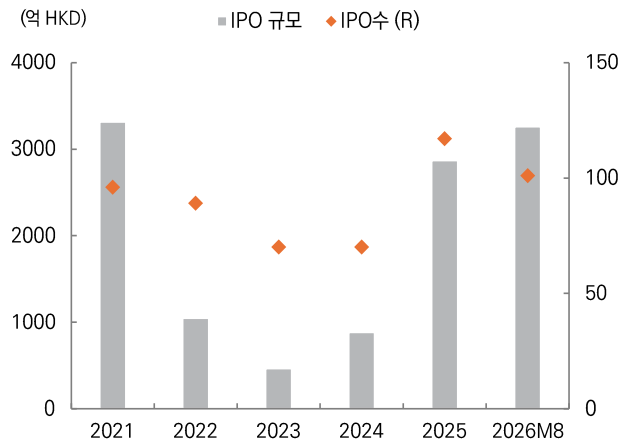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중국 증시 주요 업종별 IPO 규모 (Y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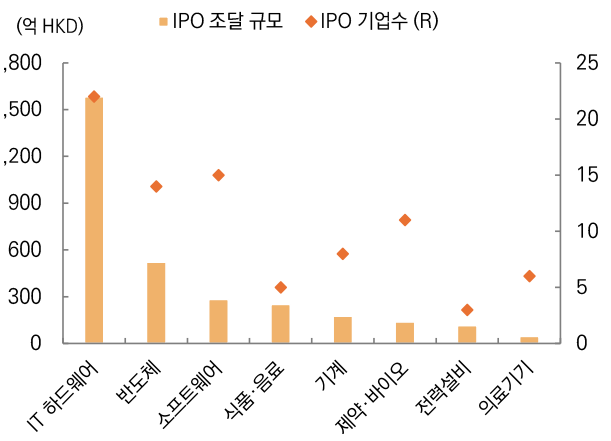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홍콩거래소 연간 IPO 추이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홍콩거래소 업종별 IPO 분포 (YTD)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리스크: 경쟁 심화와 수익성 우려도 상존

중국 LLM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려 요인도 존재한다. 가격 인하 경쟁이 지속되면서 일부 기업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경쟁 과정에서 도태되는 기업도 나타날 수 있다. 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시장 재편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대규모 CAPEX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 수익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비슷한 과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시장의 관심은 투자 규모 자체보다 컴퓨팅 자원 확보와 토큰 사용량 확대, 데이터센터 구축, 반도체 국산화 등에 더욱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 AI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은 정부와 지방정부, 국유기업, 빅테크가 함께 투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AI 모델 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시장점유율 확대와 기술 자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오픈소스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모델 보급과 생태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AI 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생태계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스타트업과 빅테크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일부 스타트업은 빅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며, 또 다른 기업들은 빅테크가 구축한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화웨이 등이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들은 그 위에서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개별 기업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AI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공통된 목표 아래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환경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투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될 경우 중국 기업들 역시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투자 효율성과 수익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로서는 개별 기업의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모델과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자본시장과 응용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 전체의 성장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중국 AI 산업의 경쟁은 특정 기업 하나의 성공 여부를 넘어 생태계 전체의 확장 속도와 경쟁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 시사점

중국 AI 산업의 성장 방향과 기술 변화는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개별 LLM 기업에 대한 접근보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중심의 LLM 기업들은 높은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아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많고, 모델 성능 경쟁과 가격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높은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모델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특정 기업의 기술 우위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반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모델뿐 아니라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기업 고객, 애플리케이션 등 AI 생태계 전반을 구축하고 있다. 개별 모델의 경쟁에서 다소 뒤처지더라도 AI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큰 소비와 추론 수요 증가를 클라우드와 인프라 사업의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과 구글 등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시장의 관심이 개별 모델의 성능 경쟁에서 클라우드와 인프라 중심의 생태계 경쟁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빅테크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현재 시점에서 중국 AI 산업 투자의 핵심은 개별 모델이 아니라 생태계에 있다. 반도체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LLM,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전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AI 인프라와 고객 생태계를 확보한 중국 빅테크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보다 AI 생태계의 확장 방향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분야의 성장 흐름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창50지수와 중국 반도체·AI 관련 ETF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투자 대상이다.

표 3. 과창50지수 및 차이나 반도체/테크 관심 ETF 리스트

테마		ETF명	티커	거래소
지수	과창판	China AMC SSE STAR 50 ETF	588000 CH	중국
		Tiger 차이나 과창판 STAR50	414780 KS	한국
		CSOP STAR 50 ETF	03109 HK	홍콩
반도체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	03191 HK	홍콩
		Global X ASIA Semiconductor ETF	03119 HK	홍콩
		TIGER 차이나반도체	396520 KS	한국
테크		TIGER 차이나테크TOP10	0047A0 KS	한국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AI 산업 유니버스

구분	티커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기준일 증가 (위안/HKD)	수익률 (%)				Valuation		
					1W	1M	3M	YTD	P/E	P/E	P/B
빅테크	9988.HK	알리바바그룹홀딩스	307.61	125.80	13.3	33.7	-3.3	-11.1	20.1	0.0	2.0
	9618.HK	JD	46.39	129.10	8.3	23.9	11.1	19.9	23.2	12.8	1.5
	0700.HK	텐센트	565.33	487.60	10.1	13.1	4.5	-17.6	16.6	16.0	3.5
	3690.HK	메이투안	72.99	92.70	3.8	29.5	11.0	-10.3	-12.6	-53.3	3.4
	9888.HK	BAIDU	38.25	110.20	5.7	-0.6	-12.1	-16.2	299.3	18.7	1.0
	1024.HK	KUAISHOU	25.11	45.52	6.7	6.9	4.8	-27.6	9.9	12.1	2.1
LLM	2513.HK	Zhipu AI	59.97	1,010.00	-21.2	-43.7	9.8	668.1	-221.4	-86.2	-52.5
	0100.HK	MiniMax	10.25	230.20	0.3	-33.6	-70.6	-33.3	-5.5	-15.0	-3.9
반도체	0981.HK	SMIC	95.49	65.30	-7.6	-15.9	-7.8	-8.6	102.7	60.5	3.3
	1347.HK	화홍반도체	37.14	135.10	-9.1	-24.1	13.5	81.8	415.7	163.3	4.5
	688825.SH	CXMT	541.61	55.00	12.2	12.2	12.2	12.2	130.5	26.0	45.0
	002371.SZ	베이팡화창	73.41	687.00	-10.8	-15.8	28.1	49.8	89.4	66.3	12.7
	688012.SH	AMEC	44.81	317.74	-20.5	-23.2	25.9	73.7	111.5	93.4	12.5
	600584.SH	JCET	17.23	65.41	-20.6	-28.0	43.7	78.0	70.8	56.9	4.1
	002156.SZ	통푸마이코	12.42	55.60	-27.5	-14.2	7.5	47.6	58.3	53.3	5.4
	603501.SH	웨이얼반도체	16.13	87.95	-7.7	-14.0	-10.4	-30.1	30.0	27.0	3.3
	603986.SH	GigaDevice	36.99	356.02	-18.0	-47.5	13.9	66.4	86.9	46.1	9.9
	688041.SH	Hygon	94.23	275.35	-12.2	-15.4	-7.0	22.8	234.8	144.0	27.2
	688256.SH	Cambricon	99.74	1,078.21	-13.1	-20.3	-5.4	18.6	249.3	124.8	52.6
	688795.SH	Moore Threads	39.91	576.63	-4.8	-10.4	-19.4	-1.9	-315.5	-1185.3	23.5
	688802.SH	Meta X	41.00	696.04	-16.2	-5.7	-8.2	20.0	-424.7	7864.9	21.3
	6082.HK	Biren Tech	11.09	33.56	-3.6	-34.6	-28.6	-2.6	-4.8	-76.0	-3.3
H/W	601138.SH	FOXCONN	175.10	59.93	-1.5	-6.3	-3.6	-1.8	29.3	19.4	6.7
	603019.SH	중과서광	18.43	85.55	-11.6	-7.7	-7.6	0.4	56.4	43.4	5.5
	000977.SZ	남조정보	16.03	74.14	-12.8	11.7	6.4	11.4	42.6	28.0	4.9
	000725.SZ	BOE	30.57	5.63	-5.7	-32.8	39.2	34.9	35.1	25.2	1.5
	002475.SZ	임신정밀	62.80	55.48	-11.8	-13.7	-17.0	-1.6	24.9	19.8	4.8
	0992.HK	레노버	39.80	25.16	3.5	18.1	116.2	171.7	20.8	0.0	5.2
	2382.HK	순우광학테크	8.07	57.80	-1.4	-3.7	-11.9	-10.5	12.3	13.4	2.0
	0285.HK	비야디전자	7.02	24.44	3.8	9.8	-9.2	-26.8	14.2	12.9	1.4
S/W	002230.SZ	신비정보	15.38	43.49	9.5	5.0	-8.8	-13.3	121.1	82.3	5.5
	688111.SH	Kingsoft Office	18.75	274.45	14.0	29.9	9.6	-10.1	35.1	49.6	8.4
	600588.SH	웅우네트워크	5.73	11.38	22.1	22.2	-2.6	-14.2	-28.3	-413.8	5.6
	0020.HK	SENSETIME	8.26	1.54	13.7	11.2	-23.3	-30.2	-33.1	-39.9	2.2
	1357.HK	MEITU	2.82	4.82	22.0	20.5	16.2	-30.4	34.3	16.2	3.5
	3888.HK	Kingsoft	5.02	28.50	15.6	24.3	26.2	0.8	12.4	23.6	1.3
	0268.HK	금접소프트웨어	3.84	8.56	19.2	34.8	-0.2	-35.6	292.5	63.5	3.3
통신 (서비스)	600941.SH	차이나모바일	231.47	96.42	2.2	10.2	2.0	-2.4	15.4	15.7	1.4
	601728.SH	차이나텔레콤	80.07	6.29	2.8	15.8	5.9	1.3	18.2	19.0	1.2
	600050.SH	차이나유니콤	20.58	4.47	2.1	9.8	0.1	-11.5	16.1	16.8	0.8
통신 (CPO/PCB)	000063.SZ	ZTE	22.85	34.37	-1.3	-4.4	-5.2	-8.1	36.7	25.7	2.1
	300308.SZ	중지쉬창	176.00	1,021.99	-5.1	-8.4	19.2	67.7	80.0	38.6	33.6
	002916.SZ	썬난서킷	33.35	332.54	-5.9	-26.8	7.1	44.0	62.3	41.8	12.5
	002281.SZ	광신과기	21.00	172.32	-10.6	-20.7	19.4	146.3	137.7	87.9	13.8
냉각	002837.SZ	임웨이커	9.27	49.43	-19.3	-30.8	-31.9	-39.8	130.5	53.8	18.2
휴머노이드	9880.HK	유비테크	5.58	86.95	10.6	-20.2	-17.3	-31.2	-56.2	-140.9	5.5
	2498.HK	ROBOSENSE	1.47	23.72	5.9	-5.9	-26.8	-35.2	-91.8	108.3	2.8
	601689.SH	탁보그룹	12.73	49.75	7.3	-20.3	-16.7	-35.1	31.3	25.8	3.5
	002050.SZ	삼화	22.91	38.74	7.5	-20.4	-16.9	-29.3	39.9	34.5	5.0
	300124.SZ	후이첸테크	25.55	64.10	7.8	-11.2	-5.9	-14.3	36.6	28.9	4.8
	601100.SH	항람유항	20.99	106.30	0.8	-12.2	1.8	-2.8	51.5	40.6	8.0
자율주행	9660.HK	Horizon	10.52	5.17	11.9	10.5	-26.7	-40.3	-7.1	-26.5	5.9
	6880.HK	MOMENTA	7.63	254.20	1.0	-14.0	-14.0	-14.0	-15.6	0.0	-3.0
	2533.HK	Black Sesame	1.16	12.72	12.3	6.9	-29.3	-34.0	-5.8	-7.3	-0.9

* 추천종목 아님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26.8.4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